

## 우즈베키스탄 섬유·패션 고등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사업 수요조사

조아라\* · 이효정\*\* · 진병호\*\*\* · 이윤정\*\*\*\*†

\*고려대학교 BK21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연구원 · \*\*국립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부교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Assessment of Educational Needs in Uzbekistan: For the Capacity Building in Textiles and Fashion Higher Education

Cho, Ahra\* · Lee, Hyojeong\*\* · Jin, Byoung-ho\*\*\* · Lee, Yoon-Jung\*\*\*\*†

*\*Researcher, BK21 FOUR R&E Center for Sustainable Living System,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 and Apparel, Technology and Managemen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 Abstract

Uzbekistan, one of the top five cotton-producing countries in the world, primarily focuses its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on raw cotton exports and the sewing industry. For Uzbekistan to achieve high added value, it is essential for the textile and fashion industry, which is currently at the CMT(cut, make, and trim) stage, to upgrade to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and OBM (original brand manufacturing). South Korea recognizes Uzbekistan as a potential manufacturing base and trading partner and has invest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unds for the development of Uzbekistan's textiles and apparel sector. This study aims to evaluate Uzbekistan's fashion higher edu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 competitiveness and measure the need and prospects for education ODA from the Korean government in this field.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including surveys of academics, industry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Uzbekistan's current fashion education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despite the textile and fashion sectors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Uzbek economy,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curricula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the fashion higher education program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as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education ODA strategies.

Key words: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경제·사회 발전(economic & social development), 섬유·패션(textiles & fashio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 교신저자: Lee, Yoon-Jung, 145 Anam-ro, Seongbuk-ku,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E-mail: yleehe@korea.ac.kr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글로벌교육지원사업의 지원(2022H1C8A1069121)을 받아 작성되었음.

## I. 서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2015년 9월에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과거 “초등교육의 확대와 보장”을 목표로 했던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MDGs에서 양적인 기회의 확대에 치중하였었다면, SDGs에서는 과거의 양적 기회의 부여 이외에도 교육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Yoo & Chang, 2015). 이러한 차이가 SDGs 하에서 학습 성과라든지, 기술개발 그리고 학습환경 개선 및 교육자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다. 나아가 SDGs는 모든 국가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 넓은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Woodbridge, 2016). ODA는 다양한 경제적·사회 정치적 요인들로 인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개발격차가 발생함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국가별로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 벌이는 대표적인 국제협력 사업을 일컫는다(Lee, 2011). 대한민국은 과거 ODA를 통해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역사적 맥락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역할수행을 기대받고 있어 2010년 이후 공식적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으로 ODA를 수행하고 있다. SDGs 채택과 함께 ODA의 패러다임도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 중심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원조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상생과 협력을 근거로 한다. 즉,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원조의 종료를 최종목표로 하므로, 수원국이 이미 보유한 역량(capability)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원국이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발전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Jo & Jung, 2019). 따라서 교육원조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중점협력국가 중아시아 4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의 하나(ODA Korea, 2021)로 최근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7위의 주요 원면(cotton) 생산국으로, 섬유·패션산업은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산업의 하나이다. 이에 섬유·패션산업 현대화와 다각화 등 산업 업그레이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발표된 발전전략에 따르면 기술 및 교육혁신을 통한 경제발전과 자유화를 도모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2021). 그 일환으로 최근 스트림 전반에 걸친 산업발전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노력으로 의류제품 수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원면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기반의 확보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섬유산업 기술발전 경험이 풍부한 한국에 섬유기술 분야의 ODA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섬유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해 온 바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속적 요청으로 한국의 기술 및 운영 경험을 통해 중앙아시아-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의 밸류체인 역할을 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 섬유 테크노파크(Korea-Uzbekistan Textile Techno-Park [TTP])가 2019년 개소되었다. 현재 한-우즈베키스탄 TTP의 운영은 우즈베키스탄의 정부로 이양되었으나, 섬유기업 지원 플랫폼으로서 TTP가 현지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기획, 경영지원 및 섬유기술 교육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Kim 등(2012)은 한국형 ODA는 국제 원조 규범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개발 경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한국형 ODA가 전문성에 기반한 프로젝트와 인력 양성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원조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수원국이 협력에 대한 이념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범을 내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제협력

의 원칙과 이념이 가장 하부단위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 이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개발협력에 대한 이념과 핵심가치를 공유한 상태에서 수원국의 개발 정책 우선 순위와 전략에 맞추어 그들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조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원국이 국제적 규범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류산업은 낮은 고정비용과 노동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수출지향적 산업 국가들이 추구하는 전형적인 초기 단계 산업으로 여겨지며,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고부가가치산업화 되는데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즈베키스탄 섬유·패션산업의 자립적인 고도화를 위해서는 섬유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세계 섬유·패션산업 강국으로 간주될 정도로 섬유·패션산업이 고도화되어 왔으며, 4년제 대학에만도 의상/의류 관련 학과가 7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등 섬유·패션 분야의 전문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이러한 패션교육 전문성은 우즈베키스탄 등 섬유·패션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와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섬유·패션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역량강화에 대한 현지의 패션 교육협력 수요조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사회, 경제, 산업, 교육의 다양한 계층의 패션 고등 교육수요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학계와 산업계를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 모델 개발로 연계할 수 있는 패션교육 ODA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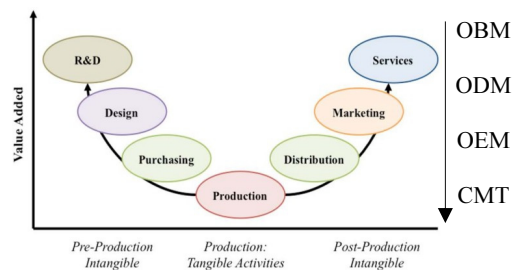
## II. 문헌 고찰

### 1. 섬유·패션산업에서 산업고도화의 필요성과 교육의 역할

섬유·패션산업은 섬유산업, 직물산업, 의류제조산업, 유통/판매 산업을 포함하며, 원자재 공급-부품공급-생산-수출판로-마케팅 및 판매의 5단계로 구성된 스트림(stream)의 형태를 띤다(Fernandez-Stark et al., 2011). 단계에 따라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이러한 산업 과정에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어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섬유·패션 글로벌가치사슬에서 경제적 수준 정도에 따라 나라별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적 단계가 다르며, 어느 단계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산업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에는 큰 차이가 난다. 즉, 봉제(의류제조)산업 또는 원면생산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단계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진국들은 고기능성 섬유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섬유·패션 분야의 가치사슬간 전형적 글로벌 분업의 형태이다.

Fernandez-Stark 외(2011)에 따르면 의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산업 고도화는 스마일 곡선으로 표현될 수 있다(Figure 1). 즉, (1)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R&D, (2) 디자인, (3) 생산, (4) 물류(구매와 유통), (5) 마케팅과 브랜딩, (6) 서비스의 6가지 부가가치 활동 중 전방의 R&D와 디자인, 후방의 마케팅과 서비스와 같은 무형적 활동(intangible activities)들은

Figure 1.  
Curve of Value-Added Stages in the Apparel Global Value Chain



Source: Fernandez-Stark et al. (2011). p. 84.

가운데 위치하는 생산활동에 비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생성한다(Kang et al., 2022). 일반적으로 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 나라의 섬유·패션산업은 가장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조립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CMT(Cut, Make, and Trim)으로부터 구매, 유통 등이 가능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단계와 디자인, 상품개발을 수행하는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단계를 거쳐, 나아가 자체 브랜드의 개발과 마케팅이 가능한 OBM(Original Brand Development)의 단계로 고도화될 수 있다.

많은 신흥 수출국가에서 의류봉제산업은 고정비용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형적인 시발산업으로 간주되며, 국가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진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2018). 우즈베키스탄의 섬유·패션산업은 특히 원면 생산국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글로벌가치사슬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R&D,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봉제/의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제작 및 디자인에 대한 기술 수준 등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수출 뿐 아니라 향후 내수시장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Lee et al., 2020). 최근 WTO(2022)에서 발표한 아시아 저개발국가 사례보고서(Asian countries graduating from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에 생산 품목 다양화와 생산능력 확대 등을 통한 섬유·패션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고등교육은 질 좋은 일자리의 직업역량을 향상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추어 사회를 위한 지식 보급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Santiago et al., 2008).

의류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인력양성에 관하여 Fernandez-Stark 외(2011)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네 단계, 즉, CMT, OEM, ODM, OBM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인력, 교육 수준, 훈련 및 경험, 기술 수준을 제시하였다. CMT 단계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력은 방직공, 재봉틀 기사, 압착기 담당자,

절단기 기사, 업무 감독관, 생산라인 관리자 등이며, 이들 인력에 요구되는 교육 수준은 재봉틀, 절단기, 압착기 등의 기기 사용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읽기, 쓰기, 낮은 수준의 산수 능력 정도이다. 그러나 보다 고도화된 산업단계(OEM)로 갈수록 소싱을 위한 직물 지식, 회계지식 등 전문적 수준의 지식이 요구되며, ODM 단계에는 패턴 메이커, 재단사, 의상 제작자, 디자이너, OBM 단계에는 재정 관리, 새로운 사업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과 브랜딩, 마케팅, 광고 능력을 갖춘 담당자 등 높은 수준의 역량과 지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일수록 고차원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양성이 필요한데, 이는 교육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가능하다.

##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섬유·패션산업의 중요성

### 1) 경제적 현황 및 경제개발 정책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ODA 정책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인식되어 2011년부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었으며,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2021년에 새로이 지정된 제3기 중점협력국에도 재선정 되었다(ODA Korea, 2021). 우즈베키스탄은 1인당 GDP는 2022년 2,078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노력은 2016년 12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속화 되어, 대외무역 확대, 외환시장 자율화, 외국인 투자 유치, 산업별 지원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왔다(KOTRA, 2021). 그 예로서, 2017년 2월 발표된 “2017-2021 발전전략”을 들 수 있는데, 특히 경제 분야는 “경제발전과 자유화”라는 개혁 계획하에 거시경제 개혁 및 안정, 기업환경 개선과 민영화 및 대외무역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발전, 농업 현대화, 지역균형 발전 등에 대한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Korea Eximbank, 2021). 농업, 섬유, 자동차 등의 국가 주요 산업의 발전과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연평균 4% 수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였다(KOTRA, 2021).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년에는 World Bank, IMF 등의 국제기구가 예측했던 5%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지 못하고 1.9%를 기록하는 침체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고 7.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Korea Eximbank, 2022).

우즈베키스탄에서 섬유·패션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해 온 핵심 산업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6년 1월 29일에 ‘경공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2008년까지 섬유산업 육성정책을 4차에 걸쳐 추진하였다(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2010). 초기(1, 2차) 육성정책은 대체로 외국 차관을 유치하여 섬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여 한국의 갑을방직과 (주)대우가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아 방직 공장을 건설한 바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섬유산업을 국가 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섬유산업발전전략(2011-2015)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2018~2021 산업구조 개혁, 현대화, 다각화 방안 프로그램’을 통해 섬유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섬유류 전체 수출에서 완제품 및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의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섬유산업은 원면수출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의류산업에서도 생산위주의 CMT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섬유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의 정책들은 기존의 원면 위주의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Korea Eximbank, 2021). 풍부한 원면과 면사, 값싼 노동력 및 인프라 자원(용수, 천연가스, 전기 등),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를 보유한 내수시장 및 인근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마켓 접경 등의 이점을 활용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면에서부터 방직, 염색, 디자인, 봉제, 마감 등 일련의 전 생산 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완벽한 산업 스트림을 구축하기 위한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KOTRA, 2018).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민간비영리기구인 Buyuk Kelajak가 2019년에 발간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보고서, ‘우즈베키스탄 2035’을 보면 섬유산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목화 원면의 수출을 최대한 지양하고, 가공 및 공정시설을 도입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브랜드화를 하여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KOTRA, 2021). 또한 15개의 면섬유 클러스터 설립과 해외인증제도 도입, 한국 및 터키 등으로부터의 기업 투자유치, 한국과의 섬유 테크노파크 설립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동안 한국,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독일, 인도, 터키 등이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180여 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전체 섬유산업에서 의류제품의 생산 비중은 2013년의 12%에서 2021년 24%로 증가한 바 있다(Korea Eximbank, 2021).

## 2) 한-우즈베키스탄 협력 및 TTP의 의의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상생 협력을 위해 2019년 9월 개소한 Ko-Uz TTP는 투자 및 방직·염색 등 기술협력을 확대하여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였다. TTP는 약 190억 원이 투입된 산업통상자원부의 ODA 사업으로 설립되었는데, 시험 분석을 수행하는 교육실험동과 연구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수행하는 시험생산동의 2개 동으로 총 7,411㎡ 규모로 조성되었다. 또한, TTP와 연계하여 산업부 ODA로 우즈베키스탄 섬유 기업 기술지도를 위한 TASK사업(생산현장으로 기술지도사업)이 13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었다(Byun, 2022). 이러한 Ko-Uz TTP 기반 양국 간의 기술협력 지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입장에서는 섬유 기업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편직기, 염색·가공기, 봉제기 및 관련 부품, 염료, 조제, 케미컬 등 한국산 장비 및 원부재료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확대라는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Byun, 2022).

Ko-Uz TTP 조성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총 5년 동안 진행하게 되었으며(KOTRA, 2018),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이후 2022년 우즈베키스탄에 일체를 인계해 주었다. TTP는 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섬유·패션 고등교육기관인 TITLI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인력 양성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TTP내의 장비는 우즈베키스탄 섬유·의류 산업의 현황과 본 사업의 기자재 도입 예산

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데, 방직 분야는 TITLI 대학에서 시험 방직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제외되었고, 방사 분야는 우즈베키스탄 내 화학섬유 생산이 없어 제외되어, 편직, 염색, 가공, 시험, 분석, 디자인, 봉제 분야가 선정되었다(KOTRA, 2019). 편직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원단 생산이 대부분 편물이라는 점과 설치 공간 및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선정되었으며, 염색, 가공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스트림 완성에서의 중요성과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포함되었다. 디자인 분야의 선정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실현뿐 아니라 기술전수를 통한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도 고려되었다. 또한 봉제기술의 바탕이 되는 Pattern CAD와 Pattern 기술 등의 인력 양성을 통해 우븐 원단의 봉제 기술까지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봉제분야의 장비도 갖추었다.

운영체계 구축과정에서는 교육인력의 수요처로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교육인력의 공급처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다(KOTRA, 2018). 특히 미래의 교육수요를 감당하여 교육·훈련시키는 전문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수요의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수요의 목표 수준에 맞추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면 각 분야별로 이론과 실습 그리고 설비 매뉴얼 등의 교재가 필요하며 또한 커리큘럼도 준비되어야 하나, Ko-Uz TIP 조성 지원사업이 종결되고 2022년 TIP의 운영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되면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계획과 실행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우즈베키스탄의 협력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TIP를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등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그것을 위한 체계적 커리큘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우즈베키스탄의 섬유·패션산업과 교육 요구도

#### 1)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상황과 인력 수요

우즈베키스탄은 29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0-29세의 비율이 62.7% 수준(KIEP, 2021)에 이른다. 이렇게 높은 청년인구 비중에 비하여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KIEP, 202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8년에 발표한 “2035 발전전략”의 경제 및 사회 부문에서 교육 및 노동시장 시스템 개선을 통한 인적자본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2035년에는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을 GDP의 7.5%(2017년 6.4%)까지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였다(KIEP, 2021). 아울러 국가 경제발전과 청년·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육을 현대화하고 청년 고용을 안정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자, 고등교육 진학률을 2018년 당시 28%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Byun(2022)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현장의 수요에 비해 정부가 산업구조 다변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의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직업훈련기관의 실습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개선, 교사 역량의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숙련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2018년 기준으로 700여 개의 섬유·의류 관련 기업에 15만 명이 고용되어 있다. 즉,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중이 매우 낮아 비숙련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초 단계의 섬유산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 연구개발 등 섬유산업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OTRA, 2018).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섬유 부문의 수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지속적인 섬유·패션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제시됨에 따라 전체 섬유산업에서 의류제품의 생산 비중이 늘고 있어 패션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섬유·패션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이에 필요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원조는 우즈베키스탄의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2)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제도 및 섬유·패션 고등교육 현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교육개혁을 통하여 학제를 12년제에서 11년제로 변경하여, 7살에 입학, 초등 4년, 중등 5년, Lyceum 또는 College 2년으로 구성하였으며 11학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Department of Social Sphe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atistics [DSSSDS], n.d.). Lyceum은 향후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유사하며, College는 본인이 선택한 희망 직업의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졸업 후 대학 진학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등학교와 유사한 과정이다. 졸업생들은 대학교 진학도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산업현장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설립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국립 또는 공립이며, 초·중·고 교육과정은 무상교육으로 취학률이 95%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Sung, 2017). 국립 교육기관별로 초등학교 47개, 중등학교 10,045개, 기타 89개가 운영 중이며, 초등교육과정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전체 학생 수는 250만 명에 달하며 교원 수는 약 51만 명 수준이다(DSSSDS, n.d.).

우즈베키스탄의 학사·대학원 과정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입학자수를 설정하고 있다(KOTRA, 2017). 1992년에서 2001년 사이 대학진학률이 19%에서 6.4%로 떨어졌으나(Education in Uzbekistan, n.d.), World Bank(2023)에 따르면 최근 2017년의 8%에서 2023년 21%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등교육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Sung, 2017), 첫째는 국가에서 특수대학교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소련으로부터 독립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했던 대학교들은 다양한 학과가 개설된 종합대학교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 부처의 산하에 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학문 분과들과 관련된 특수대학교를 설립하고 정부의 부처에서 각 대학교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대학교의 규모는 종합대학교가 아닌 단과대학에 가까우며 정부 부처의 업무와 연관성을 가지는 학문 분야들을 반영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적 형태는 해외 대학교의 분교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0년부터 해외 대학교의 분교를 유치하여 국내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예로서 러시아의 플레야노프경제대학교(Tashkent Branch of the Russian University of Economics named after G.V. Plekhanov), 모스크바국립대학교(Tashkent Branch of Moscow State University named after M. Lomonosov), 구브킨 러시아국립석유가스대학교(Russian State University of Oil and Gas named after I. Gubkin), 영국의 웨스트

민스터대학교(Westminster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 WIUT), 이탈리아의 토리노공대(Turin polytechnic university), 싱가포르의 경영개발연구원(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 MDIS) 등이 타슈켄트에 분교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교들도 종합대학교의 규모가 아니라 특수대학교와 유사하게 단과대학에 가까우며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학문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설립 초기에는 본교에서 교수와 교직원인 파견되어서 강의하고 본교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로는 토리노공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출신 현지 교수진들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ng, 2017).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4월 20일 서명된 ‘고등교육 시스템 발전을 위한 조치’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2017~2021년 다양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매년 350명 이상의 교사, 과학자의 해외 연수, 해외 우수 과학·교육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유지, 해외 파트너 기관과 협력을 통한 학위 교환 및 이중 학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규범 및 법적 기틀 마련, 2017년 말까지 ‘교육기관의 전자교육 시행을 위한 센터’의 수행과제 변경 및 승인 등을 포함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80개 이상의 대학 및 전문대학이 존재하며, 그 중 섬유 또는 의류 관련 학과를 보유한 곳은 총 8군데로 파악된다. 이들 학교 중 타슈켄트섬유경공업대학교(Tashkent Institute of Textile and Light Industry [TITLI])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인 섬유공공업성에서 운영하는 특수대학교로, 섬유공학 위주의 교육에 주력하여 섬유 의류 관련 전공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Namangan Institut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Ferghana Polytechnic Institute, Karshi Engineering-Economic Institute, Tezner National University, Urgench State University, Bukhara Engineering-Technological Institute(Buxoro Muhandislik-Texnologiya Instituti [BMII]), Andijan Machine-Building Institute 등 8개 섬유생산지역에 한 개꼴로 섬유·패션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들이 있다. 이들 대학은 우리나라의 섬유공학과와 같은 구성의 섬유 위주의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MDIS)의 분교와 한국의 여주대학교에서 설립한 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KIUT) 등에 패션디자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교육협력사업 수요조사로 우즈베키스탄 패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우즈베키스탄 패션산업 및 패션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 및 패션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학교의 교수진과 현지 기업, 정부관계자의 패션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전반적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는 탐색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패션고등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우즈베키스탄 패션산업에 대한 인식 및 대학 교육에서의 기존 교육에 대한 개선점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함으로써 패션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함께 맥락적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우즈베키스탄 패션관련학과 교수들이 인식하는 우즈베키스탄 패션 고등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우즈베키스탄 패션관련학과 교수들이 인식하는 우즈베키스탄 패션 고등교육의 개선점 또는 수요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우즈베키스탄 패션산업 전문가들과 정부관계자가 인식하는 우즈베키스탄 패션 고등교육의 개선점 또는 수요는 어떠한가?

#### 2. 연구 절차와 대상

##### 1)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관련 기관의 웹페이지를 통한 2차 자료 수집과 연구원들의 직접 방문을 통한 대면 면접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대면 면접은 2022년 7월 일주일간 TITLI 섬유경공업대학 및 부하라 BMTI 교수진, TTP내 입주기업과 현지 봉제기업 및 섬유경공업성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 또는 집단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하라 지방

에 있는 BMTI 교수진들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온라인 화상도구(ZOOM)를 이용한 비대면 면접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사회·경제적 상황과 패션산업에 대한 현황은 연구대상자 인터뷰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현지 뉴스와 해외시장 뉴스를 통해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TITLI 섬유경공업대학교 및 BMTI 교수진, TTP내 입주기업과 현지 봉제기업 및 섬유경공업성 정부관계자로 구성되었다(Table 1 참조). 특히 TITLI 섬유경공업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관인 섬유경공업성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디자인 위주의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은 프랑스 Académie Internationale de Coupe de Paris(AICP)와 공동학과 개설로 패션 디자인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을 위한 의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패션 관련 대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크게 교수집단과 실무집단으로 나누어졌다. 학계, 정부 관계자, 산업계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또는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모든 집단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패션교육 선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지 교수진 연구대상자들은 패션 또는 대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들로 5년 이상 교육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총 15명의 교수진이 대면 면접 및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 중 온라인 화상도구(ZOOM)를 이용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 BMTI 교수진을 제외한 나머지 TTP 내 입주기업과 현지 봉제기업 및 섬유경공업성 정부관계자 연구대상자 역시도 대면 면접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면 면접의 경우 언어적 편리성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원활한 내용 전달을 위해 한국어-러시아어 또는 우즈베키스탄어 통역 사용하였으며 영어를 보조언어로 사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과정은 실시간으로 녹화하였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교수진들의 질문지와 답변은 정확하고 원활한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iewees*

소속	인터뷰 참여자	자료수집 방법
섬유경공업대학 교수진	10	FGI
섬유경공업대학 교수 1(복식사, 구성 담당)	1	개별 인터뷰
KOR-UZ Textile Techno Park(TTP) 부원장	1	개별 인터뷰
KOR-UZ Textile Techno Park(TTP) 강사 및 운영자	2	개별 인터뷰
TTP입주 기업 HAJ TEX 디자이너	2	FGI
지방국립대학교 BMTI University	3	FGI
우즈벡 섬유업체 UZTEX	2	FGI
우즈벡 봉제업체 Azalium	2	FGI
섬유경공업대학 교수 2(복식사, 구성 담당)	1	개별 인터뷰
섬유경공업성 디자인 국장	1	개별 인터뷰

내용 전달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으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TTP 부원장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러시아어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들이 번역한 내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면접의 경우 각각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조사 내용으로는 패션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과 교육의 필요성, 현재 타슈켄트 섬유경공업대학교와 지방 국립대학교(BMTI)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수요 및 교육내용 개선 및 확장 의향, 그리고 패션디자인(creative or functional design), 상품개발(sewing, pattern making, construction of clothing, 3D scanning, CAD, 3D digital fashion), 브랜드/마케팅/ 매니지먼트(consumer behavior, retailing marketing, merchandising), 문화(social psychology, costume history & culture) 중 가장 필요한 교육, 패션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와 필요한 자원 즉,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 인력, 예산, 실습실 및 실습 장비 등, 패션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방안으로 정부 지원, 해외 원조, 자체 조달, 패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에도 미치는 영향 또는 파급효과 등을 포함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수준 섬유·패션 교육 현황 및 교육과정

###### 1) 고등교육 수준 섬유·패션 관련 학과 현황

섬유·패션학과가 있는 학교 중에서도 패션/의류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많지 않으며 주로 수도인 타슈켄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TITLI는 두 개의 패션디자인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에는 국립대학교(테르메즈 국립대학교, 부하라 국립대학교, 나망간 국립대학교)에 섬유·패션학과가 설립되어 있다. 부하라 지역의 BMTI는 일반 의상학과, 전통 복식학과, 신발학과 총 세 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섬유·패션 관련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TITLI 학사 및 석사과정에는 면산업기술, 경공업기술, 섬유산업기술, 자동화·관리·가공기술 등 섬유와 패션산업에 관련된 총 4개의 학과가 있다(Table 2). 그러나 학과의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면 주로 면직물 생산 및 편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섬유와 의류 분야의 스트립, 즉, 원면-조면-방직/방사-제직/편직-염색/가공-디자인-패턴-봉제 등의 분야를 모두 포괄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KOTRA, 2018).

TITLI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패션디자인학과(경공업기술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Table 3>과 같다. 표에 따르면

**Table 2.**  
*Departments in TITLI at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Department	Undergraduate	Graduate
Technology of cotton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chnology of primary precluding of natural fibers</li> <li>- Technologic machines and equipment (cotton/textile/light industry)</li> <li>- Technique of service and technology (cotton/textile/light industry)</li> <li>- Professional education (technology of primary precluding of natural fiber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chnology of primary cotton proceeding and preparation</li> <li>- Machines and apparatus of textile and light industry</li> <li>- Machines and equipments of cotton industry</li> <li>- Studying of machines</li> </ul>
Technology of light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dological technology (due to specialty)</li> <li>- Technology and construction of light industry good (light industry)</li> <li>- Design (design of cloth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chnology and construction of sewing goods</li> <li>- Design (design of clothes)</li> <li>- Technology and construction of leather and fur goods</li> <li>- Pedological education (due to specialities)</li> </ul>
Technology of textil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thodology, standardization and quality the products of management (cotton, weaving and light industry)</li> <li>- Technology and construction of light industry good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chnology reworking raw materials of textile industry (according to raw material type)</li> <li>- Technology of producing textile industry (goods types of the goods)</li> <li>- Creative constructing of textile industry goods (dissinators)</li> <li>- Quality control and expertise of textile and light industry goods (textile, light and cotton industry)</li> </ul>
Automation, management and prin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nagement (textile, light and cotton industry)</li> <li>- Bookkeeping and audit (textile, light and cotton industry)</li> <li>- Technology of printing and process of pachaging</li> <li>- Automation and management of technological process an production (textile, light and cotton industry)</li> <li>- Corporate governanc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utomation and production of technological processes (textile, light and cotton industry)</li> <li>- The technology polygraph end design</li> </ul>

Source: Dixon (n.d.).

제품의 디자인과 상품기획, 마케팅, 광고/홍보 등의 내용을 선택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수들을 만나 인터뷰한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선택과목인 상품기획과 마케팅 등의 수업은 실제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

TITLI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패션디자인 학과가 있으며, 이와 독립적으로 프랑스 Académie Internationale de Coupe de Paris(AICP)와 공동학사로 패션디자인학과를 운영하고 있었다. 프랑스 AICP와의 공동학과는 2018년부터 AICP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으며 AICP에서 2개월간 훈련받은 교수자 2인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TITLI의 자체 패션디자인 학과와는 입학생 선발 과정부터 차이가 나며, 등록금은 3배로 등록금의 격차는 교육용 기자재 등에 반영이 되고 있으며, AICP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Table 4>는 교수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한 두 학과 간의 차이를 비교한 내용이다. 두 학과를 비교해보면 입학생 선발 방식의 경우, 자체학과는 기법시험 방식으로 선발하는데 비하여, AICP 공동학과는 기법시험 및 포트폴리오 제출로 생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며, 학년별 50명으로 제한하여 선발하고 있다.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동남아 국가들에 비하여 우즈베키스탄은 소비에트 연합의 일부로서의 역사 때문인지 예술 및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으로,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회화교육을 받고 온 경우가 많아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AICP 공동학과에 대한 지원자들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교수자 대부분은 TITLI 출신이며, AICP의 경우 TITLI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온 2인의 프랑스 파견 교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등록금의 경우, 자체학과는 1년에 1,200불인 반면 AICP 학과는 3,000불로 두 배가 넘는 비용이었으며,

**Table 3.**  
*Undergraduate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at TITLI*

Compulsory courses	Elective cour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zbek (Russian) language</li> <li>- Foreign language</li> <li>- Higher mathematics</li> <li>- Physics</li> <li>- Chemistry</li> <li>- Applied programs in design</li> <li>- New history of Uzbekistan</li> <li>- Philosophy</li> <li>-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li> <li>- Drawing and painting</li> <li>- Design</li> <li>- Art history</li> <li>- Costume history</li> <li>- Basics of composition</li> <li>- Design history</li> <li>- Costume design</li> <li>- Sewing design</li> <li>- Sewing technolog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puter design</li> <li>- Information technology in clothing design</li> <li>- Advertising and design</li> <li>- Basics of artistic decoration of textile products</li> <li>- History of fashion houses</li> <li>- Fashion management and marketing</li> <li>- Costume creative graphics</li> <li>- Technical drawing of the clothes</li> <li>- Color engineering</li> <li>- Materials science</li> <li>- Materials science of sewing products</li> <li>- Costume modeling</li> <li>-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the material</li> <li>- Qualifying practice</li> <li>- Graduation thesis</li> </ul>

Source: Dixon (n.d.).

**Table 4.**  
*Comparisons of the Two TITLI Fashion Design Programs*

	TITLI 자체 패션디자인 학과	Académie Internationale de Coupe de Paris 공동학과
입학생 선발 방식	기법 시험	기법 시험 및 포트폴리오 제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 증빙)
학생수	전 학년 200명	학년별 50명
교수자	대부분 TITLI 출신 교수진	AICP 훈련 교수자 2인(과목에 따라 유동적 인원)의 프랑스 파견 교수진
등록금	1,200불(1년)	3,000불(1년)
교육과정 (개설과목)	Textile, Fashion Design, Apparel Pattern Making(Drafting), 복식사 등; 영국식 또는 독일식 교육과정	Haute Couture, Apparel Pattern Making(Drafting), 복식사 외 온라인 및 비디오 원격 교육; 프랑스식 교육과정
교육용 기자재	중국산 재봉틀, 공용 Dress form으로 작업	일본산 재봉틀, 개별 Dress form으로 작업

교육과정에 있어서 자체 학과는 Textile, Fashion Design, Apparel Pattern Making(Drafting), 복식사 등을 포함하는 반면, AICP는 Haute Couture, Apparel Pattern Making(Drafting), 복식사 외에 온라인 및 비디오 원격 교육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용 기자재에 있어서도 차이점은 자체 학과는 중국산 재봉틀, 공용 Dress form으로 작업을 하는 반면, AICP 학과는 일본산 재봉틀, 개별 Dress form으로 작업을 한다는 점이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차이는 Haute Couture 의상을 제작한다는 데 있어서 프랑스식 교육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교수진의 경우 동일한 교수진이 TITLI 자체 패션학과에서도 강의를 하고 AICP 공동학과에서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식사, 의복구성과 같은 공통강의, 공통전공처럼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에서의 차별성은 두지 않는다. 다만 TITLI 자체 학과에서는 영국식 또는 독일식 일반적인

패션과목들을 가르치고 AICP 공동학과에서는 프랑스식 패턴이나 입체 패턴 등을 교육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타슈켄트에서는 TITLI 외에 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KIUT),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 (MDIS) 등의 3개교에 패션디자인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는 대한민국의 여주대학교의 분교인 Yeosu Technical Institute in Tashkent가 명칭을 변경한 곳이며, 한국과 유럽 전문가들이 개발한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MDIS는 싱가포르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학으로,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육과정은 <Table 5>와 같다. 그러나 실제로 관계자들과 졸업생들을 만나본 바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훈련받은 1인의 우즈베키스탄인 교원이 패션학과의 대부분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산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나 수요를 충분히 지원해 줄 만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대학기관인 TITLI 섬유경영공업대학교 및 BMTI 교수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패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패션디자인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기업 내 산업현장지향적인 교육의 필요성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산업구조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의 성취를 위해 요구되는 직업교육 수준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비해 아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복식사회심리학 또는 복식문화 등 대학원 과정에서도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의류학을 다룬 과목은 복식사만 개설되어 있었다. 복식사는 보통 1년 코스로 이루어지는데 한 학기 내에 서양 복식사와 아시아 복식사(한국, 일본, 중국)를 배우고 나머지 학기에는 우즈베키스탄 전통복식에 대한 역사를 배운다고 하였다.

기술 지원과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Ko-Uz TIP에서도 산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을 진행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외에 독일 등 유럽 자본으로 산업체 인력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나, 소규모(10명)의 단기 프로그램(6개월)이며 우즈베키스탄 현지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 2. 패션교육 개선 및 확장에 대한 패션관련학과 교수진의 인식

### 1) 패션 관련 교과목에 대한 개선 및 확장 인식

TITLI 교수진들은 패션 고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다. 특히 패션 관리, 브랜딩, 마케팅, 프로모션에 관한 관심은 높으나 해당 프로그램은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타 과목에서 개괄적으로만 배운다고 하였다. 현재 주로 복식사, 구성, 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영국대학들과 3년 정도 협업한 적이 있었으나, 취업 위주, 창업보육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고 하였다. 즉, 교육·연구 활동 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는 형태였다고 하며, 한국의 대학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지방대인 BMTI에서도 패션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패턴, 컬러 관련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MTI는 패션디자인과 관련된 수업 수준은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정도는 되나 섬유패션 관련 고부가가치 상품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패션디자인 관련 수업은 다른 교과목과 달리 컬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패션디자인에서의 세부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우즈베키스탄내 패션산업의 추세에 따라 해당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MTI 교수진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패션교육 프로그램을 바로 적용시키지 못하더라도 수도에 있는 대학(TITLI)에서 먼저 새로운 패션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지금까지 대학원 과정이 없어 졸업생 중 더 높은 수준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TITLI로 간다고 한다. 보완자료로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설 교과목 및 커리큘럼 보강 또는 신설이 필요한 과목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Table 6).

TITLI 교수들은 교육과정에서 거의 모든 분야의 교과목에 대하여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패션디자인 분야의 수업이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패션디자인, 패션드로잉, 직물디자인 및 실습 등의 수업이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큘럼 보강에 있어서 패션디자인 CAD 프로그램의 요구도에서 디자인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보였다.

**Table 5.**  
*Undergraduate Curriculum of Fashion Programs at KIUT and MDIS*

Institute	Level	Curriculum	
KIUT	First Course	<b>First semester</b>	<b>Second semester</b>
		Clothing Design	Color Vision
		Construction 1	Construction 2
		Graphics 1	Graphics 2
		Art History 1	Technical Basic Design 1
		English Language 1	History Of Costume 1
	Russian Language 1	Art History 2	
	Second Course	<b>Third semester</b>	<b>Fourth semester</b>
		Clothing Materials	Construction 4
		Construction 3	History Of Costume 3
		History Of Costume 2	History Of Fashion 1
		Psychology Of Art 1	Psychology Of Art 2
Technical Basic Design 2		Technical Basic Design 3	
Third Course	<b>Fifth semester</b>	<b>Sixth semester</b>	
	Experimental Drawing 1	Experimental Drawing 2	
	Modelling 1	Modelling 2	
	Construction 5	Construction 6	
	History Of Fashion 2	Fashion Photography	
	Computer Design 2 (Clo 3D)	Technical Basic Design 5	
Fourth Course	<b>Seventh semester</b>	<b>Eighth semester</b>	
	Fashion Media	Modelling 4	
	Modelling 3	Computer Design 3 (Clo 3D)	
	Technical Basic Design 4	Methodology Of Design 1	
	Construction 7	Undergraduate Practice	
	Fashion Start-Up Internship	Graduation Research (Project)	
MDIS	Year 1 / Level 4	Technical Basic Design 6	
		Fashion Illustration	
		Methodology Of Design 2	
	Year 2 / Level 5	Fashion and Textile Cultures	
		Professional Skills for Fashion and Textiles	
		Introduction to Fashion Management	
	Year 3 / Level 6	Foundations of Marketing	
		The Relationships of Buying and Selling	
		Storytelling	
Year 3 / Level 6	Fashion and Textile Futures		
	Digital Marketing		
	Brand Marketing		
Year 3 / Level 6	Fashion and Textiles Enterprise		
	Fashion PR, Marketing and Media		
	The Fashion Project		
Year 3 / Level 6	Digital Marketing in Practice		
	Professional Practice: The Fashion Industry		
	Social Enterprise		
Year 3 / Level 6	Major Project: Planning, Analysis, Synthesis		
	Fashion Communication Project		

Source: KIUT (n.d.); MDIS (n.d).

Table 6.

Courses Taught in TITLI and Other Fashion Institutes

(Survey Results, N=7)

전공 분야	교과목	TITLI (n=4)			패션 학원/유럽자본 패션학교 (n=3)		
		현재 교육 수행 여부 <sup>1)</sup>	커리큘럼 보강 필요 <sup>2)</sup>	추후 개설 요구 여부 <sup>2)</sup>	현재 교육 수행 여부 <sup>1)</sup>	커리큘럼 보강 필요 <sup>2)</sup>	추후 개설 요구 여부 <sup>2)</sup>
패션 디자인	패션디자인	○	○	×	○	○	×
	패션드로잉	○	○	×	○	○	○
	패션일러스트레이션	○	×	○	○	○	×
	직물디자인 및 실습	○	○	○	○	○	○
	패션과 컬러	×	◎	○	○	×	○
	패션디자인 CAD	×	○	◎	○	○	×
	패션스타일링	×	○	○	○	×	○
	패션디자인발상	×	◎	○	○	×	○
상품 개발	의복구성학 및 실습	○	○	×	×	◎	×
	인체와 의복구성설계	○	○	×	×	◎	×
	테크니컬 디자인	○	○	○	×	○	○
	의류제품 자동생산공정	○	◎	×	×	×	○
	패션 테크놀로지	○	◎	×	×	×	◎
	어패럴 패턴 CAD	×	○	○	×	○	○
	여성복 테일러링	○	○	×	×	○	○
	드레이핑	○	◎	×	○	×	○
	스마트의류제조기술	×	○	○	×	×	◎
	패턴 CAD	×	○	◎	×	○	○
	3D 패턴설계 및 가상착의	×	○	◎	×	×	◎
브랜딩/ 마케팅	패션마케팅	○	◎	×	×	○	○
	글로벌패션비즈니스	×	○	○	×	×	◎
	패션머천다이징	×	○	◎	×	×	◎
	패션소비자분석	×	○	○	×	○	○
	복식사회심리	×	○	◎	×	×	◎
	패션리테일링	×	○	○	×	×	◎
	패션 e-비즈니스	×	×	◎	×	×	◎
	패션마케팅커뮤니케이션	×	○	◎	×	×	◎
	패션산업리더십개발	○	○	○	×	×	◎
소재/ 섭유	의류소재구성	○	○	×	×	○	○
	의류제품평가	○	○	×	×	×	◎
	의류소재섭유	○	○	×	×	○	○
	의류소재 관리 및 실험	○	○	×	×	×	○
	의류소재염색가공 및 실험	○	○	×	×	○	◎
	의류소재기획	×	◎	○	×	×	◎
	의류소재 기초화학 및 실험	×	○	◎	×	×	◎

Table 6.  
Continued

전공 분야	교과목	TITLI (n=4)			패션 학원/유럽자본 패션학교 (n=3)		
		현재 교육 수행 여부 <sup>1)</sup>	커리큘럼 보강 필요 <sup>2)</sup>	추후 개설 요구 여부 <sup>2)</sup>	현재 교육 수행 여부 <sup>1)</sup>	커리큘럼 보강 필요 <sup>2)</sup>	추후 개설 요구 여부 <sup>2)</sup>
복식사/ 문화	전통복식구성 및 실습	○	◎	×	○	×	○
	전통복식사	○	○	×	○	○	×
	서양고대/중세복식사	×	◎	×	×	○	×
	서양근현대복식사	×	◎	×	×	○	×
	세계의 복식문화	×	◎	○	×	○	○

Note. <sup>1)</sup> 응답자 중 한 명이라도 ○로 표기한 경우 ○로 표기함.

<sup>2)</sup> 응답자 중 한 명이라도 ○로 표기한 경우 ○, 3명 이상 ○로 표기한 경우 ◎로 표기함.

상품개발 분야에서 의복구성학 및 실습, 인체와 의복구성설계와 같은 구성 수업은 이미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었으나, 보강이 필요한 과목으로 패션 테크놀로지, 어패럴 패턴 CAD, 3D 패턴설계 및 가상착의 등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에 많은 요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크니컬디자인과 어패럴 패턴 CAD에 대해서는 추가개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브랜딩 및 마케팅 분야는 다른 전공분야에 비해 개설된 과목이 적었다. 패션마케팅, 패션산업 리더십 개발 등을 다루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 글로벌패션비즈니스, 패션머천다이징, 복식사회식리, 패션리테일링, 패션 e비즈니스, 패션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제시된 모든 과목에 대해 필요성을 보였다.

소재/섬유 분야에서 의류소재구성, 의류제품평가, 의류소재섬유, 의류소재 관리 및 실험, 의류소재염색가공 및 실험 등 다양한 의류소재 관련 수업 개설이 되어 있으나 의류소재 기획이나 의류소재 기초화학 및 실험과 관련된 수업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대학에서 소재에 대해서도 생산을 넘어서 기획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것을 방증한다.

마지막으로 복식사/문화 분야에서 전통복식구성 및 실습, 전통복식사 관련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나, 서양고대/중세복식사 또는 서양근현대복식사, 세계의 복식문화에 대한 수업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다른 전공 분야와 달리 세계의 복식문화 외에 서양복식사에 대한 추가개설은 요구되지 않았

으며,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AICP 공동학과와 유럽자본 패션학교에서는 제시된 패션 디자인 관련 모든 교과목이 잘 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품 개발 분야에서는 드레이핑을 제외한 다른 수업들은 개설되지 않고 있었으며, 의복구성학 및 실습, 인체와 의복구성설계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추가 개설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패션마케팅 관련 과목은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마케팅 교과목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였다. 의류소재와 섬유 관련 과목들도 전혀 개설되지 않고 있었으며, 모든 과목에 대하여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복식사/문화 분야에서는 TITLI와 유사하게 전통복식의 구성 및 실습과 전통복식사가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계의 복식문화에 대한 과목에 대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즈베키스탄 교육의 선진화 요구도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개선 의향

우즈베키스탄 TTP 입주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TITLI의 AICP 프로그램 졸업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TITLI에서의 교육방법 및 교재에 대한 언급이었다. 그들은 TITLI 교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노후, 내용, 목차면에서 오래된 커리큘럼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패턴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의 치수가 옛날 치수로 되어 있어 잘 맞지 않는 점, 그리고

엑세서리, 버튼, 지퍼와 같은 부자재를 구하기 어려움 등을 토로하였다. 이에 현 상황에 맞는 업데이트된 패션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TITLI 내 패턴이나 봉제기술 등의 교재는 구 소비에트연방 시절 교재를 기본으로 하기에 일반적인 강의 내용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AICP학과에서는 이론적인 강의는 없으며 훈련(training)과 실습(practice)만 있다고 하였다. 교수들에게 수업 중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이는 각 분야 중 <Table 6>에서 현재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교과목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교수들의 응

**Table 7.** *Teaching-Learning Methods Employed in Courses Taught in TITLI* (Multiple Responses, N=4)

전공 분야	교과목	이론 강의 (n)	토론 (n)	P B L (n)	실습/실험 (n)	현장 실습/실험 (n)
패션 디자인	패션디자인	3	1		2	1
	패션드로잉	1		1	1	2
	패션일러스트레이션	1	1	1	2	
	직물디자인 및 실습	2			2	2
	패션과 컬러	1	1	1	2	1
	패션디자인 CAD	1			3	1
	패션스타일링	1	1	1	3	2
	패션디자인발상	1			1	1
전체 중 과목 비율		100%	50%	50%	100%	88%
상품 개발	의복구성학 및 실습	4		1	1	1
	인체와 의복구성설계	3	1		1	1
	테크니컬 디자인	2			2	
	의류제품 자동생산공정	2			2	2
	패션 테크놀로지	1	1	1	2	2
	어패럴 패턴 CAD	2	1		2	1
	여성복 테일러링	3			3	2
	드레이핑	2		1	2	1
	스마트의류제조기술	1			2	2
	패턴 CAD			1	2	1
3D 패턴설계 및 가상착의			1	2	1	
전체 중 과목 비율		82%	27%	45%	100%	91%
브랜딩/마케팅	패션마케팅	4			3	2
	글로벌패션비즈니스	2			2	1
	패션머천다이징	2			3	1
	패션소비자분석	1			1	1
	복식사회심리	2	1	1	2	1
	패션리테일링	1	1		3	1
	패션 e-비즈니스	1		1	2	3
	패션마케팅커뮤니케이션	1	1	1		
	패션산업리더십개발	1	1	1	1	1
전체 중 과목 비율		100%	44%	44%	89%	89%



Table 7.  
Continued

전공 분야	교과목	이론 강의 (n)	토론 (n)	P B L (n)	실습/실험 (n)	현장 실습/실험 (n)
소재/ 섬유	의류소재구성	4	1		2	1
	의류제품평가	4	1		3	1
	의류소재섬유	4	1		3	2
	의류소재 관리 및 실험	3	1	1	3	3
	의류소재염색가공 및 실험	2	1	1	3	1
	의류소재기획	1		2	2	1
	의류소재 기초화학 및 실험	2		2	2	3
	전체 중 과목 비율	100%	71%	57%	100%	100%
복식사/ 문화	전통복식구성 및 실습	4	1	1	1	2
	전통복식사	3		2	3	1
	서양고대/중세복식사	3	2	2	1	2
	서양근현대복식사	2		1	3	2
	세계의 복식문화	3	1		1	
전체 중 과목 비율	100%	60%	80%	100%	80%	

답을 빈도로 표시한 결과이다.

교수·학습방법과 관련하여서도 패션디자인, 상품개발, 브랜딩/마케팅, 소재/섬유, 복식사/문화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패션디자인 분야의 경우, 이론 강의와, 실습/실험은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토론과 project based learning(이하, PBL)이 50%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상품개발 분야에서는 실습/실험이 100%, 다음으로 현장실습/실험이 91%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론강의 82%, PBL 45%, 토론 27% 순이었다. 브랜딩/마케팅 분야의 경우, 이론 강의가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습/실험 그리고 현장실습/실험이 89%, 토론과 PBL은 각각 44%로 응답하였다. 소재/섬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론 강의, 실습/실험, 현장실습/실험 100%에 이어 토론은 71%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PBL 57%였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복식사/문화 분야의 경우, 이론 강의와 실습/실험 100%, 현장 실습/실험 80% 그리고 다른 분야와는 달리 PBL을 80%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토론은 60%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 3) 산업적 수요 및 기존 졸업생 진로

패션산업에서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TTP 부원장과 기업종사자들, 정부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대학교수들의 응답을 통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패션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산업적 수요 및 졸업생 진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원면 생산국으로 방적 및 편직물 생산 등에 대한 기술 수준은 높으나 합성섬유 생산이나 우븐 제품의 생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TTP 부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생산 물량은 면100% 제품으로 혼방제품에 대해서는 염색, 가공 등에 대한 기술 수준도 낮은 편이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출되는 면제품은 대부분 40수 정도로 고급 섬유의 생산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하였다. 또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의 유통시설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내 자체 브랜드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며, 우븐 제품들은 터키 또는 주변국가들로부터 원단을 수입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추, 지퍼 등의 부자재 산업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조사 대상이었던 두 업체는 편직업체인 UZ TEX와 봉제업체로서 자체 브랜드 Omio Dio를 생산하고 있는 Azalium이었

다. 먼저 편직업체인 UZ TEX의 경우, 방직, 편직, 수건, 의류, 양말 등의 5가지 라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물량의 10%는 내수, 90%는 수출용이며, 특히 완제품(의류)의 경우 러시아로 수출된다고 하였다. 이 업체의 디자이너들은 TITLI 출신으로 경력과 역량이 OEM을 주로 진행하는 현재의 단계에서는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인력 양성보다는 기존 인력의 교육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방직에서 염색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다는 인터뷰 결과를 통해 BMPI에서 컬러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패션산업 흐름의 변화에 따라 대학에서의 요구도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현장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토로하였고 산업현장지향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Azalium의 경우, 중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딸이 어머니의 사업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2004년 FOB(Free On Board) 기반으로 수출 OEM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OEM 제품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라트비아로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수용 브랜드인 Omio Dio는 대표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쇼룸을 먼저 오픈하였으나 지금은 폐쇄하고 온라인(텔레그램)으로 판매중이라 하였다. 원단의 경우 자체 수급(전량 구매)하고 있다. Azalium의 대표는 독일에서 젊은 창업자 또는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패션디자인보다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관리, 경영, 테크니컬 디자인 분야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섬유경공업성 정부관계자는 기업의 디자이너들과의 소통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패션의 메카로 만들고 싶은 요구도가 높아 자체브랜드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있다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패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섬유제품 100%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자체브랜드 개발로 수출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대학 기관 내 학생 교육보다는 기업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UZ TEX의 입장과 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는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기업에 취업하지 않거나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기업의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을 하면 섬유산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TITLI와 BMPI의 교수들을 통하여 졸업생들의 진로를 질문한 결과 패션 디자이너 직업 자체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나,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였다. 2022년 7월 인터뷰 당시 아직 AICP 공동학과 졸업생은 없었으며, TITLI 패션디자인학과(일반학과)의 졸업자들은 대부분 맞춤형을 만들어주는 소규모의 양장점과 같은 개인 부티크를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Bukhara 지역의 경우 봉제업체와 클러스터가 많은 편으로 패션 디자이너 수요가 많은 반면, BMPI 디자인 졸업자들이 50여명이 되는데 낮은 연봉 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졸업생들이 섬유 패션 업종이 아닌 회사를 선택하고 이동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력 수요와 공급의 괴리는 우즈베키스탄 패션산업의 낮은 생산성, 즉 저부가가치 업종인 패션 디자이너의 낮은 연봉 수준 등 경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섬유패션산업, 특히 의류생산업은 대부분 CMT를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있으며 대량생산에 기반한 산업인 데 비하여, 패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맞춤형 위주의 생산과정에 적합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지어는 프랑스와 공동학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TITLI에서도 입체재단을 통한 디자인 및 의류제작만을 다루고 있고, 높은 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패션산업에 필요한 컴퓨터 패턴 교육 등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실제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직업활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기업에서는 OEM 또는 ODM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필요한 상품기획을 주도해 갈 디자이너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도화를 위한 체계화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섬유산업 고도화와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할 인력 수요에 대응한 다양하고 풍부한 섬유·패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육협력사업 수요조사로 우즈베키스탄 패션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차자료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패션산업 및 패션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즈베키스탄 패션 고등교육에 관여하는 교수진과 현지 기업전문가, 정부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패션고등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2년 7월 일주일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대면 면접 방법으로 TITLI 섬유경공업대학 및 부하라 BMTI 교수진, TTP내 입주 기업과 현지 봉제기업 및 섬유경공업성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 또는 집단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원면 생산국이라는 입지로 인해 산업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섬유·패션 교육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관계자 모두 패션교육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비에트연합의 일부로서의 역사로 인하여 유사한 경제 수준의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Kang et al., 2022), 디자인 및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량이 개발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엔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다양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섬유·패션 관련 고등교육 현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또한 산업에서의 인력수요와 교육과정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수급에서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패션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섬유경공업분야 주요대학인 TITLI는 두 개의 패션디자인학과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방국립대학 BMTI는 일반의상학과, 전통복식학과, 신발학도가 개설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와 한국의 대학들이 운영하는 대학에 패션디자인학도가 있었다. 이들 학교 교육과정은 대체로 맞춤형 생산 위주의 패션디자인교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홈페이지에 상품개발, 브랜딩/마케팅 등의 교과목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교육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 모두 패션교육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기존의 패션교육 프로그램 체계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교과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섬유경공업 대학교와 BMTI 대학교 교수들은 모두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섬유·패션 프로그램의 다양성 요구, 선진화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었다.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CAD 프로그램의 요구도에서 디자인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보였으며, 특히 컬러와 관련된 지식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는 직물염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상품개발 분야에서는 패션 테크놀로지, 어패럴 패턴 CAD, 3D 패턴설계 및 가상착의 등 컴퓨터를 활용할 수업에 많은 요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품개발과 생산과정의 자동화를 통한 ODM 생산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테크놀로지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OBM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브랜딩 및 마케팅 분야는 제시된 모든 과목에 대해 필요성을 보였다. TITLI와 BMTI 모두 섬유분야에 특화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소재/섬유 분야에서 의류소재기획이나 의류소재 기초화학 및 실험과 관련된 수업이 없었다. 교수들은 이러한 과목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 대학에서 소재에 대해서도 생산을 넘어서 기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전공 분야와 달리 복식사/문화 분야는 새로운 교과목의 필요성보다는 이미 개설되어있는 과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에 비하여 AICP 공동학과에서는 패션디자인 관련 교과목이 비교적 잘 개설되어 있었다. 상품개발 분야에서는 드레이핑을 제외한 다른 수업들은 개설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패션마케팅 관련 과목들, 의류소재와 섬유 관련 과목들도 전혀 개설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복식사/문화 분야에서는 TITLI와 유사하게 전통복식의 구성과 전통복식사가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세계의 복식문화에 대한 과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즈베키스탄 교육의 선진화 요구도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기존 교재내용과 커리큘럼의 노후화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 확인하였다. TITLI에서 운영하는 AICP 공동학과와 경우 교육용 기자재 등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으나, 일반학과의 경우에는 그보다 품질이 낮은 기자재를 사용하며 의복제작을 위한 바디폼도 공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TITLI 내 패턴이나 봉제기술 등의 교재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기본으로 하기에 일반적인 강의 내용은 여전히

이전에 머무르고 있으며, 교재의 목차 면에서도 노후화된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신체치수 등에 대한 자료가 오래된 것으로 젊은 세대의 체형이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졸업생들의 언급이 있었다.

세 번째로는 교수들의 역량 강화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과 개설 또는 MOU를 통한 장기적인 교육협력에 대한 의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현지 대학 및 협력기관 TTP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긴밀성 및 성과를 얻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는 강의뿐 아니라 실습이나 현장성 있는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토론이나 PBL 등의 방법은 이용되고 있지 않아 비판적 사고 또는 문제해결 능력보다는 기술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산업에서의 인력난과 청년실업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이 패션 분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산업고도화 수준과 현장의 수요 및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산업단계 면에서 OEM과 ODM 과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CAD/CAM 및 상품개발과 테크니컬디자인 전문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맞춤형 의상을 제작하는 패션디자인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션업계에서 이러한 전문성에 대하여 평가절하하여 빚어진 낮은 연봉과 열악한 업무환경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섬유·패션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 역량강화에 대한 패션 교육협력 수요조사를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즈베키스탄의 사회, 경제, 산업, 교육의 다양한 계층의 패션 고등 교육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후에 학계와 산업계를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전략적인 패션교육 ODA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패션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수요 조사를 통하여 교육 ODA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가정학의 한 분야로서 패션 교육 ODA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가정교육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제시한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적 수요와 고등교육 종사자들의 관점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산업교육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어 산업교육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나라에서의 패션산업 및 교육의 현황을 현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학술적 의미가 있다.

##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 참고문헌

- Byun, H. S. (2022). Moon Jae-in government's achievements and tasks i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Slavic Studies*, 38(1), 25-48.
- Department of Social Sphe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tatistics [DSSSDS] (n.d.). *General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By the beginning of the 2020/2021 academic year*. [https://stat.uz/images/uploads/reliz2021/orta\\_talim\\_en\\_2020.pdf](https://stat.uz/images/uploads/reliz2021/orta_talim_en_2020.pdf)
- Dixon, D. (n.d.). *Tashkent institute of textile and light industry (TITLI)*. <https://slideplayer.com/slide/13463251/>
- Education in Uzbekistan (n.d.). I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Uzbekistan](https://en.wikipedia.org/wiki/Education_in_Uzbekistan)
- Fernandez-Stark, K., Frederick, S., & Gereffi, G. (2011). *The apparel global value chain*. Durham, U.S.: Duke Center on Globalization, Governance & Competitiveness. [https://gvcc.duke.edu/wp-content/uploads/2011-11-11\\_CGGC\\_Apparel-Global-Value-Chain.pdf](https://gvcc.duke.edu/wp-content/uploads/2011-11-11_CGGC_Apparel-Global-Value-Chain.pdf)
- Jo, G., & Jung, Y. (2019).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cultural ODA of Korea: focused on Uzbekistan.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23(3), 27-59. <http://doi.org/10.18327/jias.2019.7.23.3.27>

- Kang, M.-K., Jin, B. E., Cho, A., Lee, H., Lee, J., & Lee, Y.-J. (202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tatus of and demand for higher education programs in fashion in Myanmar.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4(3), 1-23. <https://doi.org/10.19031/jkheea.2022.9.34.3.1>
- Kim, E. M., Kim J. H., Kim, J. K., & Lee, J. E. (2012).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추진방향 [Direction of Korea's public development assist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7(4), 11-31. <https://doi.org/10.34225/jidc.2012.4.11>
- Kimyo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 (KIUT) (n.d.). *Fashion design*. <https://kiut.uz/en/programs/bachelors-programs/faculty-directions/Fashion-Design/>
- Korea Eximbank (2021, April). *포스트코로나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과 시사점 [Uzbekistan's industrial policy and implications in the post-corona era]* (Issue Report, 2021(local issue 2). Seoul: Author.
- Korea Eximbank (2022, May 19).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우즈베키스탄 [National credit rating report, Republic of Uzbekistan]*. Seoul: Author.
-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2021, January 19).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2021년도 연두교서 주요 내용과 시사점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the 2021 state of the union address by the President of Uzbekistan]*.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list\\_no=3558&act=view](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list_no=3558&act=view)
-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TECH) (2010).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Uzbekistan's textile industry]*. Chungcheongnamdo: Author.
- KOTRA Development Corporation Office (Ed.) (2018). *2016/17 Knowledge sharing program (industry&trade) with Uzbekistan: Policy consul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textile industry in Uzbekistan* (Vol. 8). Seoul: Author.
- KOTRA (2017). *우즈베키스탄 교육 시장동향 [Uzbekistan education market trends]*. Seoul: Author.
- KOTRA (2021). *Industrial structure of Uzbekistan*. <https://m.emic.org/businessDetail>
- Lee, C.-W. (2011). New trends of intern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Korea's ODA polic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4(2), 777-808.
- Lee, Y.-J., Lee, J., & Jin, B. E. (2020). *Global apparel production and fashion business*. Paper Presented at the 15<sup>th</sup> ICYKOK Conference, Seoul.
-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of Singapore (MDIS) (n.d.). *School of fashion and design*. <https://www.mdis.uz/en/schools/school-of-fashion-and-design>
- ODA Korea (2021, January 20).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Reselected as ODA partner country]*. Sejong: Author. pp. 35-3.
- Santiago, P., Tremblay, K., Basri, E., & Arnal, E. (2008). *Tertiary education for the knowledge society* (Vol. 1). Paris: OECD. <https://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41266690.pdf>
- Sung, D. (2017). Analysis on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 environment in Uzbekistan after independence. *Central Asian Studies*, 22(2), 199-226.
- Woodbridge, M. (2016, May). *From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at are SDGs?* (Urban Issues 01). Kyounggido: ICLEI Korea Office. [https://ncsd.go.kr/api/이클레이+브리핑+시트\\_01\\_SDGs란.pdf](https://ncsd.go.kr/api/이클레이+브리핑+시트_01_SDGs란.pdf)
- World Bank (2023). *School enrollment, tertiary (% gross): Uzbekista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E.TER.ENRR?locations=UZ>
- WTO (2022). *Textiles and clothing in Asian graduating LDCs: Challenges and options*. <https://www.wto.org/english>
- Yoo, S.-S., & Chang, E. J. (2015).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KOICA 중장기 전략 수립 논의 [Discussion on establishing KOICA mid- to long-term strategy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DG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0(4), 119-129. <https://doi.org/10.34225/jidc.2015.4.119>

### <국문요약>

세계 5대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섬유·패션산업은 주로 원면 수출과 봉제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고부가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MT(cut, make and trim)단계에 있는 섬유·패션산업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OBM(original brand manufacturing)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잠재적인 제조기지이자 무역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섬유 및 의류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투입해 왔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쟁력의 맥락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패션 고등교육을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교육 ODA의 필요성과 전망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현재 패션 교육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하여 학계, 업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의 설문조사, 개별 심층면접, 집단 심층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섬유 및 패션 부문이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육 ODA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논문접수일자: 2023년 9월 26일, 논문심사일자: 2023년 10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10월 16일